

‘일회용품 제한’ 계도기간 1년 둔다... ‘식당 물티슈 금지’ 철회

**비닐봉투 등 사용제한 품목 확대 조치
11월24일 시행하되, ‘참여형 계도기간’
‘플라스틱컵 사용 제한은 지자체 자율’**

환경부가 오는 11월24일 시행될 예정인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에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식당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부담금 대상으로 전환, 관리하는 방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는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이 품목에 추가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따르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당초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계도 기간 없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장 온라인 설명회 등에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매장의 준비와 소비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이를 수

용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환경부는 11월24일 조치 중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 금지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조치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 기간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분기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유지되고 있는 카페와 식당 내 플라스틱컵 사용 제한 유예 조치는 11월24일부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밝힌 단속 유예 지침을 해제한다는 의미로, 단속 여부와 관련해 지자체에 자율

권이 주어질 예정이다. 올해 8월 이후 온라인 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불합리한 규정도 11월24일 이전에 정비한다. 예를 들어 편의점 등 실제 현장 상황을 고려해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을 가열만 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신고를 했더라도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일회용품 온라인 설명회 등을 진행하면서 그간의 금지조치나 기존 규제들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책의 진전,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회용품 보증금제 시행 유예 등 윤석열

정부 들어 환경 정책이 지속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일회용품을 얼마나 줄였느냐가 진전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와 별개로 시행을 검토 중이던 식당 내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 제한 추진은,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부담금 품목에 포함해 제질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 국장은 “현장 적용성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환경목표를 생각했을 때 식당 내 금지품목으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라며 “식당 내 금지품목으로 추진하는 방향은 철회를 하고 당초 목표인 물티슈 내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여내기 위해서 부담금 품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한미연합공중훈련 규탄 침묵 퍼포먼스 겨레하나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담아, 전쟁 위기를 불러올 한미연합공중훈련을 반대하는 침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 애도기간 중 예정된 한미연합공중훈련 ‘비밀런트 스톰’을 강행한다며 이를 규탄했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14일부터 2만명 1차접수

고용부, 오는 24일까지 1회차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농어촌 등 산업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2023년도 1회차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약 2만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인력 11만명 도입의 후속 조치다.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는 이 중 신규 입국 8만9970명에 대한 것으로, 이번 1회차를 포함해 총 4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1회차 신청 접수는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진 것이다. 1회차 발급인 2만명분의 업종별 배정 인원을 보면 ▲제조업 1만4718명 ▲농축산업 2725명 ▲어업 1563명 ▲건설업 748명 ▲서비스업 100명이다. 뉴스

고용부는 업종에 관계 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한 탄력배정분(연간 1만명)의 경우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사전에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내국인 구인 노력은 농축산업의 경우 7일, 그 외 업종은 14일이다.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결과는 오는 12월9일 발표된다.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의 경우 12월12-16일, 그 외 업종은 12월19-2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김현근기자

광주 도심서 SUV·시외버스 추돌...1명 경상

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SUV 차량과 시외 고속버스가 추돌해 1명이 다쳤다. 1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광주 서구 광천동 편도 8차선 도로

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차량이 앞서 있던 45인승 시외고속버스(대구행)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버스에는 운전 기사와 승

객 10여 명이 타고 있었으나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가 우회전 뒤 도로에 합류하자마자 직진 중이던 SUV 차량이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해 난 사고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SUV 차량의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여수 해상서 표류하던 60대 선원 숨져

1일 오전 8시 47분께 여주시 경호동 소경도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60대 남성 A씨가 표류하고 있는 것을 인근 낚시배 선원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수습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의 신체에는 별다른 외상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전날부터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동료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김현근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